국립국어원이 나아갈 길

조남호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박창원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소원 · 서울대학교 교수
남영신 ·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민현식 · 서울대학교 교수
송향근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정숙 · 고려대학교 교수
한재영 · 한신대학교 교수

조남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립국어원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로 국립국어원이 개원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주년을 기념하여 ≪새국어생활≫ 2011년 봄 호의 특집 주제를 '국립국어원의 성과와 전망'으로 정하고, 네 분 선생님께 원고를 청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선생님

들 몇 분과 국립국어원 직원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발제자 선생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국어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했으면 합니다.

먼저 토론자로 참석하신 세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발표하신 순서대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표자 분들은 아무래도 주제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평소 하고 싶은 말씀을 못 하신 것도 많으실 겁니다. 발표한 내용 외에 국어원에 조언할 말씀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어원 직원들에게도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들으시면서 미리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잘한 점보다는 부족했던 점, 과거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국어원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숙 선생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토론 부탁을 받고 국립국어원이 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송향근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듯이 한국어 교육 사업이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된 이후인 2006년~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1990년도 후반인 것 같습니다. 1997년도에 시작된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인 연구나 사업의 시초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기초 조사라든지 교재 개발이라든지 초기의 사전 개발, 네트워크 구축이나 교원 자격 제도 마련 등이 그 시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최근 10년 동안 한국어

교육의 질적인 성장이나 양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국립국어원이 한국어 교육 사업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가 차원의 사업이나 지원이 있어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개인이나 연구자 혹은 교육 기관이나 교재를 출판하는 곳들이 다 함께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원에서 이제 어떤 사업들은 개인이나 교육 기관에 혹은 출판사에 맡기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교재 인증이라든지 교재 추천과 관련된 연구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는 영어 교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교재는 기본적으로 상업성이 있지만 한국어 교재는 상업성이 적고, 그중에서도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는 개별 연구자나 출판사가 결코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재를 포함한 상업성이 없는 과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 연구 과제나 장기적인 연구 과제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초급용 어휘 목록도 이제 선정했고, 그다음에 학습자용 말뭉치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이 대규모의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외에도 지금 한국어 교육계는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과제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좋을 과제가 아니라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송향근 선생님께서 담화 말뭉치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갖는 자료로서의 유용함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긴박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종적인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는 사실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고급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발달 양상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영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한국어가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학습자들 머릿속에는 '한국어는 어려운 언어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미국에서 한국어 교수법도 거의 개발되지 않았을 때, 교사들도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을 때에 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성이 없는 과제, 대규모 혹은 장기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이런 과제들에 많은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매체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지금까지 종이 책을 많이 개발했고, 그다음에 웹 교재들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재 개발은 지금 당장은 효용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2년이나 3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이북(e-book)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트위터를 통한 소통도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교재도 어떻게 이북(e-book)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바뀌어 가는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국어 교재 개발이라든지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중장기 계획도 현재의 관점에서 보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 후에 혹은 5년, 10년 후에 필요

한 것을 예측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관점에서 일을 찾아 하다 보면 3년 후엔 이걸 하게 될 것이다, 5년 후엔 이걸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세종학당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교재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세종학당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재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을 대상으로 교재 개발을 할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들이 사회에서 할 역할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2~3년 후면 그들이 한국에서 좀 더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또는 자기 계발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닥쳤을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영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발표하신 네 분 중에 주제 발표하신 세 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건 가져가시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현식 선생님께서 어문 규정에 관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가끔 '어문 규정을 없애면 안 되겠는가? 어문 규정이 우리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약하는 것 아닌가?'라는 도발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문 규정을 없앱시다. 제가 10여 년 전에 책에 썼습니다만, 맞춤법, 표준어 규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같은 복잡한 규정이 꼭 필요한지는 연구를 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한글의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입니다. 한글의 기능은 한글 맞춤법으로 구현되는데, 현재 상태는 한글의 뜻 표기 기능에 불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파벳의 뜻 표기 기능, 한자의 뜻 표기 기능, 일본어의 뜻 표기 기능을 다 검토해 보시면서 '한국어의 뜻 표기 기능을 한글이 제대로 구현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국립국어원이 심각하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국립국어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언어와 타 학문의 융합 연구. 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타 학문 특히 심리 언어학, 매체 언어학, 사회 언어학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 언어와 정치, 언어와 경제, 언어와 행정, 최소한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신중하고 심각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언어는 어떤 것이며, 언어가 정치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등의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치 쪽에 '국어 어떻게 합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국가 발전이라든지 경제 발전, 또는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노사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언어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국어 쪽에서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공공언어 얘기가 나오니까 언어와 행정은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세밀하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언 쓰기'나 '바르고 고운 말'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국어와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어와 개인의 일상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 사람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언어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제를 개발하고 연구해 나가는 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국어 정책과 관련해서도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 국어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언어 정책학이라

든지 언어 정책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했고, 국어 정책학회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정책학, 국어 정책론 이런 학문이 좀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언어 정책이나 국어 정책은 주로 공공언어와 긴밀하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또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이 대학원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학원에서 그런 쪽의 전문가를 장기적으로 양성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출신들이 우리 국가 언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국가와 사회가 직접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언어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공언어 관련해서 '무엇을 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범위 내에서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공공언어와 관련해서 정부와 좀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법원과 같은 내로라하는 기관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는가. 즉, 전선(戰線)을 형성해 놓고 이들 기관과 한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공공언어 개선은 옛날부터 공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밖에서 누군가가 강력하게 제기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민간이나 밑에서 하자고 해서 바꾸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대통령이 법과 규정을 만들어서 각 연방에다 뿌리고 하니까 행정 기관이 이에 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공언어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명령이나 법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계속 시끄럽게 해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하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공공언어를 개선하겠다면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계속 부딪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공공언어 개선은 국어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어원

이 다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국어원이 물러서도 안 됩니다. 시민 단체나 대학이나 여러 연구 기관을 전부 모아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언어의 평가 시스템 또는 평가 지수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와대 또는 국회 어느 부서에서 공공언어 사용은 어떠했다고 발표하고, 작년에 비해 좋아졌나 나빠졌나를 평가하고,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점이 나빠졌는지도 평가했으면 합니다. 평가를 국어원이 할 수도 있지만 현재 국어원의 위상으로는 쉽지 않을 테니까 시민들의 전문 역량을 모으십시오. 그래서 연말에 국어와 관련해서 정부에 뭔가 한마디를 꼭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재영: 앞의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총론과 각론에 대해 네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현식 선생님께서 인문학을 국어학과 관련짓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로 정책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를 할 시간이냐, 아니면 우리가 야구를 해야 하는데 축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또 야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한다면 그것은 접어놓고 축구는 제대로 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주된 관심의 초점을 국어 정책에 두고 있는데, 그 외에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

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어원의 업무 성격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원 개원 20년 그러지만, 사실은 84년도 국어연구소 시절부터 치면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입니다. 그 시기는 대체로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어연구소 시기, 국립국어연구원 시기, 그리고 국립국어원 시기라고 명칭대로 시기를 구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의 성격도 다소 바뀌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인 ≪새국어생활≫, 그 이전의 ≪국어생활≫에서 다루었던 주제나 특징들, 그리고 보고서의 흐름을 보면 업무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제1기에는 ≪국어생활≫이 있습니다만 교양적인 측면을 표방했습니다. 제2기에는 어문 정책을 홍보하고 전문가의 연구 성과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머리말에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어문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어와 한글에 관련된 여러 성과, 전문가의 연구 성과를 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제3기 국립국어원 시기에는 따로 표방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다룬 내용을 보면 전문가의 연구 성과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고 어문 정책을 널리 알리는 등 국어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 힘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언어 정책 또는 충실한 국어 보급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국어 연구 없이 가능한 것인지, 실용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의 깊이 없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어 교육이 응용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로만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이 내용이 돼야 하는데, 내용에 관한 관심이 적어질수록 '어떻게'는 점점 의미가 바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축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를 하는 게 지금 온당한 일이라고 했을 때 축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했는데, 국어 정책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고 했을 때 국어원의 업무에서도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이 '무엇을'에

관한 내용, 즉 국어 정책을 논의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목록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에는 아직 우리의 갈증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를테면 국어 순화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에 국어 순화를 열심히 했을 때 22,000~23,000개 어휘를 순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10%도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느냐?'라는 '어떻게'라는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되었느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 세종계획 같은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사실 과거 없었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자료 축적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개발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과연 얼마만큼 일반인들에게 쓰이는지, 전문가에게 어떤 보탬이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에 관심을 둬야 국민적 합의를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도 정답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적절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민현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춤법과 표준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남영신 선생님께서 전적으로 동감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맞춤법이나 표준어는 1933년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례로 표준어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표준어이고 저것은 비표준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떤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을 볼 때에 어휘만을 기준으로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휘라는 것은 언어를 구성하는 데 지극히 작은 일부이고, 표준어 사정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마땅치 않아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던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체가 다양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표준어 규정 자체를 음성이든 억양이든 또 문장의 어떤 호흡 단위든 이런 것까지도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 자체를 표준화할 수 있어야지 어휘만을 대상으로 '표준어다', '비표준

어다'라고 하는 것은 온당한 접근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춤법의 경우에도 규정에 주된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거기에 실린 용례들은 이미 굉장히 낡아서 쓰이지 않는 어휘들이고, 오히려 좀 거북한 어휘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머릿니'의 용례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저는 지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20~30대는 '굽도리' 같은 말을 잘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휘 차원을 넘어서 발화 차원까지 표준어를 생각해 봐야겠다는 얘기이고 용례의 적절성 또한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용 실태 조사가 중요합니다. 아까 "띄어쓰기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라고 하셨는데, 한쪽으로 원칙을 정했을 경우와 허용을 하는 경우 중에 지금 어느 경우를 많이 따르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북통일을 대비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춤법과 외래어 쪽에 차이가 많아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문제에 관한 한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란 이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선 전신의 발명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르코니를 생각합니다. 전구의 발명자는 옳다 아니다 얘기가 있습니다만 데이비드 또는 에디슨 정도를 떠올립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은 라부아지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알고 있는 무선 전신의 발명자는 보브프라입니다. 전구의 발명자는 로시진입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은 미하일 로모노소프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통일이 됐을 때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전혀 들어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냉전 시대로 인해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그쪽에선 그쪽대로, 이쪽에선 이쪽대로 발명하고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말뭉치나 구축하고 검색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품을 들여야 되고

사람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어 정책에 관한 박창원 선생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어 정책학, 국어 정책론 강의를 멋모르고 개설했다가 한 학기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흥미진진하게 다시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어 책임관이 아닌가 합니다. 국어 책임관 제도를 만드니까 각 기관에서 사람을 따로 뽑지는 않고, 기존 사람에게 겸직을 시킵니다. "아무개 계장이 국어 책임관 겸직해.", "너 국문과 나왔어? 그럼 해." 이렇게 되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거의 모릅니다. 만약 그와 관련된 결과 보고서를 써야 한다면 그냥 하루 날 잡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국어 정책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빈틈까지 막을 수 있는 궁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 교육의 경우에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은 별개라고 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별개의 것이고 정말 공통점이 없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교육이라는 공통분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용 어휘 선정 사업의 경우에 직접 말씀을 안 하셨지만, 각주에 만족스러운 표현을 하신 거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성과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작업에서는 6천이 채 못 되는 5천 9백 몇 십 개 어휘를 선정하고, A·B·C 초·중급으로 나눴습니다. 5천 9백 몇 십 개의 어휘는 각각의 학습 단계에 한 번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라도 다의어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학습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학습용 어휘 선정 사업은 학습 단계가 고려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활용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각 기관별 학습 단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 보급에도 장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차별, 지역별

그리고 수준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많이 하셨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피드백 절차는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꼭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로 그것이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가라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국어원이 40년, 60년, 100년을 가기 위해서는 역할의 충실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 안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언어 정책에 관한 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쳐서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언어 정책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분들, 특히 예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중 전략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남 선생님께서 투쟁하고 싸우라고 하셨는데 저는 싸움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욕하면서 늘 닮는 게 일본이고, 닮아가는 것에 거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가 '국립'을 뗐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것조차 일본을 따라 배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20주년 행사로 각국 언어 정책 기관장들을 모시고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기관장들을 모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여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정황상, 형편상 국어 정책에 관심을 두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본연의 국어 연구 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연구'를 뗀 것은 연구를 아우르라는 의미이지 버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 일본에 1년 동안 가 있을 때에, 여기서 제게 한국어를 배우고 간 친구와 자주 만났습니다. 근대사를 하는 친구였는데, 일본에 머무는 동안 술친구로도 잘 지냈습니다. 하루는 술 한 잔 하다가 농담 삼아 제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야, 너희 참 멍청하

다. 우리보다 더 한반도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어느 마을에 소가 몇 마리인지, 쌀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다 조사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서 삼키지도 못하고 목에 걸렸다가 뱉어 내니? 내가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 같다.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식민지를 완전히 삼켜 소화까지 시킨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한글 맞춤법 표기안 같은 것을 만들었던 데가 어디 있는가? 그 당시에 조선의 민도가 일본의 민도보다 높았기 때문에 소화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뿌듯했는데, 그것은 5초도 못 갔습니다. 역시 그 친구도 일본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인 제게 순순히 지기는 싫었던 것인지,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데, "그런데 요즘 같아선 해 볼 수 있을 거 같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1933년의 우리 선배들처럼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분들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20년 된 국립국어원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남호: 예. 세 분 감사합니다. 먼저 토론자 세 분의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 이제 발표자분들께 보충 말씀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민현식: 국립국어원 역사를 2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입니다. 1990년에 국립국어연구원조직법이 만들어져서 국어연구소가 승격하여 국립국어연구원이 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요즘 대학 등의 기관들은 역사를 소급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20년사 자료집에 국어연구소 시절이 '간추린 해적이'에는 나오는데 부록에서는 다루지 않아 일관성이 없으므로 공기관의 역사 기술이 혼란스럽습니다. 국어연구소부터 시작한다면 30년 역사가 되는데, 법적이나 기록적인 측면에서 보면 초창기 국어연구소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그때 연구들도 잘 기록,

정리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재영 선생님께서 일본의 국어연구소 말씀을 하셨는데, 1998년도에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 50주년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48년 일본은 패전한 후 국어 정책부터 재정립하려고 국어연구소부터 설립했습니다. 50주년 기념 학술 대회에서는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일본어 말뭉치 구축이었습니다. 1860~1870년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일본 형성기 100년 동안의 말뭉치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신태양≫ 같은 잡지들의 자료를 말뭉치로 입력해서 일본의 과거의 것을 구축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온고(溫故)하는 모습이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어원도 50주년, 100주년을 바라보며 적어도 세계 제일의 언어 기관, 언어 정책 기관이란 큰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팎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국어학자, 외국어학자들이 연합하여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면 선진국의 언어 기관에 뒤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외국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오셨기 때문에 국어학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아우르는 국립국어원이 되어야 하고, 국립국어원도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언어 연구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세계 언어로까지 연구 영역을 넓히면 자연히 한국어와 한국어학의 위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어가 안에서는 국제화, 세계화, 다문화주의에 접근하려고 합니다만 한국어 중심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어 연구라든가 국어 정책의 위상도 세계 언어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큰 틀로 접근하여야 바르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운, 문장, 단어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해 왔으므로 이제는 담

화(담론, 텍스트)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의 '불통'과 '소통'을 자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국어 연구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통' 문제를 집중 연구하여 사회 쟁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의 주제 발표에서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을 말씀드린 것은 국어원이 우리 사회의 언중이 말하는 프레임 유형을 분석해서 정책화하고 쟁점화하여 사회적 각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고위 정책자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국어 책임관, 그런 게 있어요?"라고 되물을 정도로 국어 책임관에 대해 모르고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국립국어원이 규모는 비록 영세하지만, 그런 프레임을 제시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소통을 말씀하시는 이런 때가 국어원으로서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소통 문제는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갈등 문제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화 연구 등에서 세계 제일의 언어 기관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그냥 구조주의 언어학 시대의 연구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나온 토론 말씀 중에 기초 연구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년사 자료집의 머리말에서 이기문 선생님께서도 '국립국어원'으로 개칭한 것에 대해 '연구'라는 단어가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어원과 같은 기관이 단기적, 표면적, 대중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기초 학문 연구를 풍부히 하고, 기초 학문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존중받는 나라가 국가의 품격과 문화적 깊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이나 국어학과 같은 기초 연구에도 우선적으로 지속적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심오한 학문과 실용적인 학문의 두 축이 잘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박창원: 특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통일과 발전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과 발전이 아니면 언어 정책

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에 90을 잘했고 10을 못했다면, 이 10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90까지 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통일된 국가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당시 쓰던 각 나라의 상이한 문자들, 상이한 문자로 쓰인 책들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국에는 진나라 문자만이 남고, 언어가 남고, 진나라의 모든 체계가 남아서 중국이 통일된 것입니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문명을 이루었던 인도도 아소카 왕 시대에 문자를 통일시키는 시도를 했는데, 결국 통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국가의 언어가 다른데 그것을 통일하지 못하면 그 민족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분열되어 있잖습니까. 네팔이라든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옛날에 분리된 것도 다 언어가 나눠지고 종교가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글 맞춤법의 예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글 맞춤법을 마음대로 쓰라고 해 보십시오. 띄어 쓰는 것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띄어쓰기를 하지 말아 봅시다. 중국어처럼 하지 말든가, 아니면 영어처럼 다 띄어 쓰든가, 아니면 규정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든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띄어쓰기에 있어서 구인지, 복합어인지 또는 이것을 접미사로 볼 것이냐 의존 명사로 볼 것이냐 하는 미묘한 문제는 언어가 변화하면서 문법화되고 실사가 허사가 되고 허사가 실사되는 역사적인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쟁을 거부한다면 고정된 상태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변

화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와 통시의 문제가 어려우니까 다루지 말자고 하면 학문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됩니다. 역사적인 변화 과정에서 통시적인 시점과 공시적인 시점을 구분할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영원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띄어쓰기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99%가 같고 1%가 다른데, 이 1%가 다른 것만 가지고 계속 지적해서 '너하고 나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옳은 시각이 아닙니다.

제가 1~2년 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공공언어학 연계 전공, 공공학 전공을 만들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제 힘이 부족해서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역할을 다하는 국어정책학회 또는 한국어정책학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공공언어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북의 언어 문제가 남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전라도에 갔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자기보다 열 살 정도 많은 형님보고 "자네 이렇게 하소."라고 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열 살이나 많은 형님보고 자네라 그러나. 또 한참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야, 우리 이야기 그만하고 빠구리 치자."라고 합니다. 경상도 사람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표현이죠. 두 방언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들었던 지식에 관한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감은 지식에 관한 문제와 가치관에 관한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식에 관한 것은 별로 관계없습니다. 내가 틀리게 말을 하더라도 나중에 해명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다음 가치관의 문제는 남북이 화해를 해서 통합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진 쪽의 가치관이 그냥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양성을 인정해서 서로 상대편을 인정해 주자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방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만 인정하면 아무런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편을 배려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우리가 키운다면 남북한 교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그 과제로 국립국어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동남아나 중국에서 학술 대회를 여러 번 조직하였는데, 거기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어떤 문법 항목과 비슷한 문법 항목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라 그러면 '까지', '까지도', '까지조차'를 막 설명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왜? 한국어 교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차이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국 사람이 설명을 하겠습니까. 또 '네가 오니까'와 '밥을 먹어서'의 '-니까'하고 '-어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한국어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국립국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향후 방향은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가 존재의 기반이 돼야 합니다. 교수들이 연구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협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계되는 일을 한다든가 해서 국립국어원이 연구를 제대로 하고, 그 연구의 바탕이 제대로 응용이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조화를 이루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장소원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언어 논리에 관한 부분도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를 토의해서 만들고, 상관 지수를 만들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균형 있게는 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적인 연구이고,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연구직들은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사업 관리와 연구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될 수 없습니다. 국어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와 관리를 하고, 대학이나 대학 연구소의 교수들이 내지 못하는 연구 업적을 여기서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국립국어원이 계속 클 수 있는 기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원: 남영신 선생님 말씀 중에 공공 언어는 국가가 지켜야 할 선을 형성해 놓고, 위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고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단체나 학교 연구단이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또 제일 듣기 좋았던 말은 평가 지수와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날 실태 조사만 하고 있는 것, 사실 실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는 것도 의의는 있지만 더 나아가서 발전, 효율성을 추구한다든지 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할 때는 뭔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언어 사용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관별 언어 사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 30대 기업은 매년 소비자 대상의 기업 실적 설명서를 언어 사용 측면에서 평가하고, 순위를 매겨서 보고하고 언론 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 실적 보고서에서 숨기고 싶은 내용들은 얼마든지 숨긴다고 합니다. 문장을 아주 애매하게 씀으로써 잘못한 것은 숨기고 잘한 것은 부풀려서 실적 보고서를 낼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독일은 단어 사용부터 문장 구성, 텍스트 구성까지 얼마나 제대로 이해가 잘 되게 썼느냐 하는 걸 평가하는 것이 그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내놓는 자료에 대해서도 언어 사용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어 능력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국어 능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직업군으로 해도 좋고, 연령별이나 성별로 해도 좋습니다. 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모르잖습니까? 어휘력만 하더라도 500개

단어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몇 만 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원에서는 2006년에 이미 국어 능력 조사 방법론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별 국어 능력 측정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다 만들었는데 벌써 5, 6년 지났으니까 이것을 수정·보완해서 국민의 국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측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뒤쳐진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고 미루지 말고,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특별 직군용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저는 방송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정 직군용 혹은 특정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어 얘기를 한재영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이제는 표준어가 어휘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 표준어를 쓰는데도 귀에 너무나 거슬리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억양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100% 표준어를 쓴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 억양은 이런 거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도 표준 억양까지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국어를 제대로 하는 것인데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억양까지 포함된 표준어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또 글쓰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시험을 채점하러 가 보면 평가 항목으로 이해력, 논리력, 사고력, 분석력을 두고 20점, 30점씩 배당하고 있는데 엄밀한 기준이 없어서 채점을 하면서도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SAT는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기준이 주어지고 가점 요소와 감점 요소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술 시험으로 변별력이 없으니까 논술 시험을 없애자고 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

어서 채점을 해야지, 채점할 수 없으니까 없애자는 논리는 논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와 같아져 버립니다. 누구나 논술이 중요하다는 건 다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국립국어원 업무 중에 하나가 국민의 국어 능력을 키우는 일이니까 국립국어원이 이런 데에 좀 나서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향근: 지금 한국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국립국어원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재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2003년에 학습용 어휘 선정 사업은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로서는 그런 것조차 없었는데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서 어휘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방법적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서 평가를 하거나 교재를 만들 때 이 사업의 결과물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해서 적절해서 아니면 신뢰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기초 어휘의 목록 작업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기초 연구는 분명히 국립국어원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어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어와 한국어는 같은 것입니다.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대상 언어는 동일합니다. 다만 어느 표준에서 출발해서 어떤 길을 따라서 거기까지 도달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문 규범 관련 부분입니다. 표준어 규정에

표준 발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표준 발음이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따라야지 하는데, 이 부분이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는 그대로 갈 수도 없고 안 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국어와 한국어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원 사업 중 한국어 교사 재교육 사업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 교사 재교육을 위해 파견할 한국어 전문가를 선발, 교육할 때,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성 결혼 이민자 또 거기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한국 사람으로만 만들려고 하느냐? 물론 한국 사람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그런데 이들을 이중 언어인 내지는 더 나아가 다중 언어인, 이중 문화인 또는 다중 문화인으로 키워야 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계의 언어라는 측면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한국어의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원 양성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국어원에서 다룰 일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교육 기관에서 교원 양성 학위 과정이나 단기 과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방향은 정규 과정에 대한 것보다는 양성 과정에서의 재교육 또는 보수 교육이라는 측면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맞춰서 어느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한국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대로 세우는 것인가 하는 차원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 사업에 관한 모든 것에 국립국어원이 직접 나서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와 이미 협조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아까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연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2~3년 전에 연구사 면접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분들은 현재 국립국어원 연구사 선생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오는 건가? 연구가 아니라 정책을 시행하고 또 보고서 만들기에 매달려 있는 걸 알고 왔나?'라는 궁금증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는 계셨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연구 업무를 원치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회가 될 때에 연구에 초점을 두어 방향 설정을 하시고, 또 대규모의 장기화된 연구를 계획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 선생님께서 발표문에 저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적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 선생님이 못 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국립국어원은 국내 대학을 교육 연구 기지로 삼아야 한다. 한국어 교원을 직접 연구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고, 한국어 교육 전공 교수를 채용한 한국어교육학과와 언어교육원만 연구 사업에 응모토록 하여야 한다. 우수 교수 학습 자료를 공모해서 우수 교원을 선발 지원한다." 어찌 보면 한국어 교육은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늬만 한국어 교육.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한국어교육학과이고 대학원 과정이라고 한다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전문 교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 선생님이 제안하신 대로 한국어 교육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조남호: 예, 감사합니다. 토론자 세 분과 발표자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국어원 직원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저희가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국어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해명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국어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젠데 해결이 잘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성: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장소원 선생님께서 국어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국어능력 발전과가 생긴 이후로 예전부터 국어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은 어느 정도의 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고,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되는지를 관심 있게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런 연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장소원: 예. 지금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것은 글쓰기 문제입니다. 글쓰기는 텍스트와 관련된 것이니까, 텍스트 구성을 본다면 얼마나 잘 짜여 있는가를 볼 수 있고 텍스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자체가 좋은 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그런 기준들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명문이라는 것을 모아 놓은 책들도 있고 과거를 보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명문들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았다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좋은 글을 뽑아서 읽히려고 좋은 글을 찾으면, 정말 좋은 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하나도 안 대고 그대로 "좋은 글이니 읽으세요."라고 할 만한 논설문도 별로 없고 수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글쓰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한참 손을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학자들이 글쓰기의 기준을 찾으려는 노력을 너무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찾을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텍스트는 이론만 적용해도 몇 개의 기준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갈고닦아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글쓰기 논술, 적어도 논술문 평가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어원이 수행한 과제 중에 국어 능력 측정, 보급 등의 방법론이 있으니까 조금 보완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안선국: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어 교육이 요즘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요건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서 조화롭게 또는 통합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 통용 표준 모형 같은 경우도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풀어가야 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국외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들이 나라마다 달라서 한국어를 어떻게 보급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중기 계획이 2014년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김정숙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담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 요건이 계속 변하고 있으므로 미래 지향적이고 거시적인 부분과 함께 급변하는 환경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교육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수요가 급증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재 편찬 같은 부분은 민간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원과 함께 학계 선생님들께서 애를 써 주셔서 체계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외적인 실태나 환경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세종학당이나 한국어 교육 기관을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어 교육의 거시적인 전망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세부적인 방향을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식: 송향근 교수님께서 끝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들을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 기지'로 협력 기관화하여 질적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어 교원은

2급, 3급 이렇게 있는데, '기관 인증'과 '고시 인증' 개념을 구분할 때, 우리는 기관을 믿지 못해 고시 인증에 너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관 인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양성 기관의 공통 교육과정 표준화도 요구하고 기관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교사 수준도 높아집니다. 사실 현장에서 강의하는 한국어 교원들의 사기 진작이 가장 시급합니다.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 교원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총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는 대학들은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관 인증을 하고, 국립국어원이 이를 국내 세종학당식으로 브랜드화하여 학교 규모급별로 나누어 기관 품질 인증을 하고 적극 지원함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학자금을 융자를 해 줄 때에 교원을 일정 비율로 확보하지 않은 대학의 학생에게는 대여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을 수십 명씩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한국어 교육 전공 전임 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국에 일반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가 있고 교육 대학원에, 일반 대학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원에서 한국어 전공을 개설하고 보면 대부분 전임 교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학원, 일반 대학원에서 한국어 전공이라는 이름을 내걸려면 반드시 전임자들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국립국어원이 기관 인증을 내걸어서 전국의 많은 어학당이나 기관들을 평가할 때에 그 기관의 전임자가 몇 명인지, 한국어 교원들에 대한 대우는 잘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 한국어 교원을 교육자로 대우하지 않고 일반 행정 직원처럼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인 한국어 교원 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관 인증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저는 국립국어원이 한국어의 위기와 희망 같은 것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관 안에

위기를 얘기하는 부서의 연구자들과 한국어의 국제화와 세계화와 같은 희망을 얘기하는 부서의 연구자들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기관 안에 상충되는 두 가지 주제 연구가 존재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어가 아주 호황이 되는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유럽 정상들은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한국어의 위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한재영: 정리를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국어원이 해야 할 일의 목록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국어원 내에서 할 일과 국어원 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남호: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부 선생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렸고, 저희가 말하는 것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원장: 예. 귀한 시간 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장소원 선생님 발표할 때 귀한 손님이 와서 피치 못하게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서지학을 연구하시는 후지모토 유키오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학에서 같이 온 분이 일본 국어연구소에서 말뭉치 구축하는 일을 하여서 우리 언어정보팀에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은 1998년부터 세종계획을 세워서 말뭉치를 구축했는데 매우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서 했던 자료와 방법론의 도움을 받아서 2005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행

복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국어 정보화에 있어서 한국이 앞서 갔고, 지금 일본이 와서 배워 갈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다른 일도 열심히 했지만 국어 정보화 면에서 본다면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일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에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어학자 노마 히데키 선생님이 전자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물음표를 세 개 찍어 보내면서, "한국의 국립국어원장이 이런 말을 해도 됩니까.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만 "앞으로 국립국어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세계 언어의 다양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어느 잡지 인터뷰에서 제가 했던 표현을 그분이 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며, 한국의 국어원이 정말 큰일을 한다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어원은 한국어에만 머물지 않고 언어 다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토론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도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가 국어원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을 더욱 높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회가 열리면 되도록 참석하고, 더 나아가서 학술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고 또 논문집에 논문을 내서 연구하는 국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들어 보니까 연구 활동을 독려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 회의 때 제가 드린 말씀이 공허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국어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귀한 말씀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남호: 예.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